

이재명, '민생' 내세우며 '친문 꺼안기'

尹대통령엔 “협력하되 퇴행엔 맞서겠다” 밝혀 최고위원들 ‘윤석열정부’·‘김건희’ 비판 쏟아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는 29일 첫 주재한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물가·환율·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당 대표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분석이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더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협치와 견제의 강-온 전략 병행 구사 입장을 밝혔다.

당의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쟁 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시에 당내 통합 행보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취임 첫날부터 양산을 찾은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친문계를 다독이려는 의도라는 관측이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바꾸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추가조사·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해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김건희 여사와 김해관(김 여사 핵심 관계자)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라며 “특별검사를 통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김 여사의 추가조사·허위경력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소수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했던

“한동훈·이상민 동시 탄핵” 주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힘을 받았다.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면서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 “경찰국 문제를 시행령만 갖고 한 대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지겠다”며 “마지막 수단이 결국은 (이상민)장관 탄핵인데 그 부분까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평산마을 찾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사저 대문 주변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국 의존도 75% 이상 수입품목 600여개

김희재 “공급망 다변화에 정부 적극 나서야”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 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

(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 (13.1%), 미국 49개 (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6천540만 달러의 수입액 중 97%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다른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코발트의 수입액은 9천160만 달러였는데 이 중 89%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조흑연(91%)과 수산화리튬(83%)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는 반도체 웨이

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100%), 웨이퍼 제조용 도가니(99%), 포토 레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98%) 등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났다.

김희재 의원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소재·부품·장비 육성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노력했지만, 아직 특정 국가에 편중된 소·부·장의 자립은 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산화율 확대 등 지속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럽

윤재갑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천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를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



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與, ‘새 비대위’ 전환 속도전

‘권성동 거취’ 놓고 내용은 계속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초된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을 놓고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헌상 비상상황의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못 박는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여부는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시한을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는 점진산중이다. 일련의 대흔돈 사태에 대해 당 주류인 윤해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해관의 만행은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시한을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을 요건을 규정해 ‘당헌 9

6조’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혹은 3명이 사퇴하면’ 등 문구를 넣어 구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삼일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엔 긴급 의총을 열고 당헌 개정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새 비대위를 순조롭게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헌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부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선(先) 수습’ 방침에 따라 그 이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진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윤해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사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 수습은 누가 하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나”라며 일단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몇 명인가. (수습을) 할 분이 없잖나. 왜 위기 타개할 능력을 갖춘 분이 없잖나”라며 “너무나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정무 1·2 비서관 사의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참모진의 중폭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사실상 경질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